



멕시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시장 대전환

멕시코에서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노동개혁이 최종적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멕시코 연방 의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승인한 데 이어 정부가 이를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 공식 게재하면서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개혁은 멕시코 노동 제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노동 환경과 기업 경영 구조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체계가 정착되면서 멕시코 역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노동시간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번 개혁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됐다. 멕시코는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 국가로 알려져 왔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현실이 이어져 왔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등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 멕시코 연방 의회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이 승인된 이후 의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이번 제도 시행으로 멕시코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개혁을 노동권 확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었다며 근무시간 단축이 멕시코 노동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노동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이번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의 집중력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멕시코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 단체들은 정부가 세제 지원이나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멕시코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기업들은 생산 방식과 인력 운영 구조를 재 정비해야 하고 노동시장 역시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이 새

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멕시코 노동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비공식 노동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상당수 노동자가 정식 노동계약 없이 일하고 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실제로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새로운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주 4일 근무제까지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맞추어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개혁이 멕시코 사회의 노동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시간 노동 중심의 기존 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생산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서도 노동시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
2월 05일 헌법의 날	11월 02일 망자의 날*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4월 02일~03일 부활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01일 노동절	12월 25일 성탄절
5월 0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일부 휴일은 월요일로 변경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8.08	살 때	1,410
팔 때	19.12	팔 때	1,362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멕시코 정부, 연료 밀수·도난 단속 강화... 범죄와 전면전

멕시코 정부가 석유 연료 절도와 밀수 범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에너지 범죄 조직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송유관 연료 절도 사건이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군과 국가방위대, 연방 경찰을 동원해 전국적인 단속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연료 절도는 흔히 ‘우아치콜(huachicol)’로 불리며 오랫동안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로 지적되어 왔다.

범죄 조직들은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Pemex)가 운영하는 송유관에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 연료를 빼내거나 밀수 석유 제품을 암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 조직범죄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 치안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 에너지부와 보안 당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단속 강화로 연료 절도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송유관이 지나가는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조직범죄 세력이 연료 절도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 멕시코 국가방위대가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의 송유관 주변 지역을 순찰하며 연료 절도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조직범죄와 연결된 불법 연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인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송유관 주변 지역의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군과 국가방위대가 주요 송유관 구간을 순찰하며 불법으로 설치된 연료 추출 장비를 제거하고 연료 운송 차량과 저장 시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송유관 주변 지역의 주민 신고 체계를 강화해 범죄 활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료 절도가 멕시코에서 매우 조직적인 범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료를 빼돌린 뒤 암시장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는 운송 조직

과 중개업자, 불법 주유소까지 연결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연료 절도가 범죄 조직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는 단속과 함께 기술적인 감시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송유관 감시 센서와 드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확대해 송유관 훼손이나 불법 접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페멕스와 보안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송유관 관리 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게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에너지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는 세계 주요 산유국 가운데 하나이며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는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료 절도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료 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뿐 아니라 구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범죄 조직에 협력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 경제 개선과 사회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멕시코 정부는 앞으로도 연료 절도와 밀수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범죄와 연결된 불법 연료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추적과 수사도 확대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이 장기적으로 연료 절도 범죄를 줄이고 에너지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DIGA
INMUEBLES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산업용 대형창고 임대 및 판매

몬테레이와 살티요에 근접한 위치 소재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최신 시설의 대형창고
물류 창고에 대한 고민이 해결 됩니다.

최소 4,000 m² (1,200평)
최대 50,000 m² (15,000평)

☎ 사무실: 811-165-6005 / 812-584-9465
✉ 이메일: digainmuebles@gmail.com
🌐 홈페이지: www.diga-inmuebles.com

멕시코시티,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로 치안 강화

멕시코시티 정부가 도시 전역의 치안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감시 카메라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정부는 범죄 발생이 잦은 지역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거리, 지하철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수만 대 규모의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멕시코시티 지휘통제센터(C5)가 운영하는 도시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C5는 경찰과 긴급 대응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도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범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 출동을 지

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카메라는 고해상도 영상 장비와 360도 회전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비상 호출 버튼과 경보 시스템이 포함된 스마트 기둥(smart pole)도 함께 설치된

다.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로 즉시 연결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멕시코시티 당국은 감시 카메라 확대가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

근 몇 년 동안 감시 카메라 설치가 증가하면서 차량 절도와 보행자 대상 강도 사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감시 시스템 확대가 시민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정부는 감시 카메라 운영이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도시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감시 시스템 뿐 아니라 경찰 인력 확충과 지역사회 협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멕시코 비공식 노동 증가... 도시 경제의 또 다른 현실

멕시코에서 비공식 노동이 계속 증가하면서 도시 경제의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공식 노동이란 정식 노동 계약이나 사회보장 제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멕시코에서는 상당수 시민이 이러한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전국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공

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 멕시코시티와 주요 대도시에서는 거리 상점, 노점상, 비등록 서비스업 등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공식 노동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부족을 꼽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자영업이나 임시 노

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비공식 노동에 의존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비공식 경제는 한편으로 도시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거리 상점과 소규모 상업 활동은 많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 형태는 사회보장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의료보험이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비공식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TU LICENCIA,
UN MUNDO DE POSIBILIDADES.



국제운전면허
이제 필수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문의 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곧바로 연락하세요!



licenciasinternacionales@outlook.com



www.licenciasinternacionales.com.mx



(+52)33 1574 1283



8008384572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멕시코, 물 부족 위기 심화... 수도권 수자원 관리 비상

멕시코 수도권에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과 저수지 수위 감소, 도시 인구 증가가 동시에 겹치면서 수도권의 주요 수자원 시스템이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와 멕시코시티 당국은 수도권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자원 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멕시코시티와 인근 수도권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은 '쿠차말라 수자원 시스템(Cutzamala System)'이다. 이 시스템은 멕시코 중부 산악 지역의 여러 대형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멕시코시티와 주변 도시로 공급하는 대규모 수자원 인프라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멕시코 국립수자원위원회(CONAGUA)에 따르면 쿠차말라 시스템의 저수지 수위는 최근 몇 년 동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저수지는 평년 대비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으며 이는 수도권 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



황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약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한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 규모는 물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순히 가뭄만이 아니다. 멕시코시티의 물 부족 문제는 오래된 상수도 인프라와 누수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도관 노후화로 인해 공급되는 물의 상당 부분이 도시로 전달되기 전에 누수로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체 공급량의 30% 이상이 누수로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도시의 지하수 사용이다. 멕시코시티는 오랫동안 지하수를 주요 수자원으로 사용

해 왔지만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지반 침하 문제가 심각해졌다. 실제로 멕시코시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반이 매년 몇 센티미터씩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멕시코시티 주민들은 물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물이 일정 시간만 공급되거나 며칠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거나 물탱크 트럭(피파, pipa)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 정부와 시정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빗물 재활용 시스템 확대와 수도관 교체, 지하수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물 사용 절약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 절약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도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후된 상수도 인프라를 개선하고 물 재활용 기술을 확대하며 지하수 사용을 줄이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자원 관리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물 부족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은 도시 생활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 활동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시티가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와 도시 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물 문제는 멕시코 수도권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 멕시코 정부와 지방 당국은 수도권 수자원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과 장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수자원 관리 정책이 도시 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시티 공항 이용객 증가... 항공 수요 빠르게 회복

멕시코시티 국제공항(AICM)의 이용객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멕시코 항공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공항 당국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며 공항 운영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남미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과 비즈니스 여행객이 동시에 늘어나면

서 항공편 운항 횟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멕시코가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공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공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공항으로 연간 수천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관문이다. 최근 항공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시간대에는 탑승 수속과 보안 검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공항 혼잡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당국은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터미널 운영 개선과 항공편 배치 조정 등을 통해 공항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수도권 항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멕시코시티 북쪽에 위치한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AIFA)의 활용도 확

대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두 공항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항공 교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멕시코 관광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향후 항공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북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평가받고 있어 국제 항공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주택난, 투기와 공급 부족이 만든 '집 없는 도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도시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도심에서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투기와 공급 부족, 그리고 도시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 멕시코시티 도심 전경.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인구 증가와 부동산 투자 확대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도시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약 2,2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수도권 도시로 멕시코 경제와 정치, 문화의 중심지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집중 현상은 주거 문제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방에서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시티 중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수백만 페소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폭이 더욱 커져 일반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단순히 시장 수요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와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가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시티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그 결과 실제 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개발 구조도 주택 공급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멕시코시티에서는 토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발업체들이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건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고급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임대료 상승이다.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임대 시장으로 몰리면서 임대료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임대료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월 수천 페소에서 많게는 만 페소 이상까지 올라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정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멕시코시티에서도 도심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노동자와 학생들은 도심에서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통근 시간이 길어지고 교통 혼잡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을 이동에 소비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와 시정부 역시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주택 건설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특히 노동자 주택 지원 제도인 인포나빗(Infonavit)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도시 토지 이용 정책과 개발 규제, 부동산 투자 구조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 시장 규제, 그리고 도시 개발 정책의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멕

시코시티의 주택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는 도시 경제 구조와 인구 이동,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 활동이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주거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거주자 증가도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노마드와 외국인 장기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일부 지역의 임대료 상승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주거 문제는 이제 단순한 도시 정책을 넘어 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와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시티가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 주택 정책을 통해 균형 잡힌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그리고 공공 주택 정책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현재의 주거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시티의 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주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백만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멕시코시티가 직면한 주택 위기는 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멕시코 · 미국, 북미 무역협정 재검토 협상 시작

멕시코와 미국 정부가 북미 자유 무역협정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북미 경제 협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이달 중순 첫 공식 협상 회의를 열고 협정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USMCA 협정에 규정된 정기 검토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북미 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산업 규정과 원산지 기준, 제조업 투자 환경, 공급망 협력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USMCA는 2020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시행된 협정으로 멕시코·미국·캐나다 3국의 경제 협력을 규정하는 핵심 무역 체제다. 이 협정은 북미 지역의 상품 교역을 촉진하고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멕시코 경제에서 USMCA의 영향은 매우 크다. 멕시코 전체 수출의 약 80%가 미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농산물 등 주요 산업이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협정 조건의 변화는 멕시코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멕시코는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USMCA 협정은 자동차 부품의 북미 생산 비율을 높이는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의 생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제조업 투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비교적 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 그리고 USMCA 협정 덕분에 멕시코는 북미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북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모두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경제부는 협정 검토 과정에서 멕시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북미 지역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 산업 구조와 투자 흐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산업과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북미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협상은 북미 경제 협력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멕시코 페소 약세... 달러 환율 18페소 근접

최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 멕시코 페소 가치가 약세를 보이며 달러 환율이 18페소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정책 전망과 글로벌 투자 흐름 변화가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 시장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 페소는 달러 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며칠 동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전망과 글로벌 투자 자금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신흥국 통화가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



지할 경우 투자 자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 Banxico)은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비교적 높은 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멕시코 경제의 기본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는 북미 공급망에서 중요한 제조업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현상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흐름은 멕시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

다. 최근 경제 전망 조사에서는 멕시코 경제 성장률이 약 1~2%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 변동성은 수입 물가와 기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소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기반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환율 흐름은 미국 금리 정책과 국제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멕시코 경제 성장 전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시티 공항 이용객 증가... 항공 수요 빠르게 회복

멕시코시티 국제공항(AICM)의 이용객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멕시코 항공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공항 당국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며 공항 운영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남미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과 비즈니스 여행객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항공편 운항 횟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멕시코가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공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공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공항으로 연간 수천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관문이다. 최근 항공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시간대에는 탑승 수속과 보안 검

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공항 혼잡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당국은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터미널 운영 개선과 항

공편 배치 조정 등을 통해 공항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수도권 항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멕시코시티 북쪽에 위치한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AIFA)의 활용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두 공항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항공 교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멕시코 관광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향후 항공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북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평가받고 있어 국제 항공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 확대... '니어쇼어링' 효과로 산업 성장 가속

멕시코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업 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니어쇼어링(nearshoring)' 효과가 멕시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니어쇼어링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주요 소비 시장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미국 시장과 인접한 멕시코가 대표적인 투자 대상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멕시코는 지리적 위치와 자유무역 협정, 비교적 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 덕분에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산업단지와 공장이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누에보 레온, 코아우일라, 치와와, 바하 켈리포르니아 등 미국과 가까운 주에서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의료 장비,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를 통해 북미 시장에 보다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후속 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 역시 이러한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은 북미 지역 내 생산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를 전략적인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분야다. 멕시코는 이미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관련 부품과 배터리 산업 투자도 확대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도 나타나

고 있다. 전자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컴퓨터 부품과 전자기기 생산 공장이 북부 산업단지에 들어서면서 멕시코는 북미 전자 제품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향후 북미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투자 증가가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제품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전력 공급과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북부 지역의 산업단지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 전력망과 교통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잊혀진 황후 카를로타, 제국의 꿈과 비극의 삶

19세기 중반 멕시코 역사에는 짧지만 극적인 시대가 존재한다. 바로 프랑스의 군사 개입으로 탄생한 멕시코 제2제(1864~1867)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한 왕실 여성이 있었다. 벨기에 공주 출신으로 멕시코의 황후가 된 카를로타(Carlota, 본명 Charlotte of Belgium)의 삶은 권력과 이상, 국제 정치, 그리고 개인적 비극이 교차하는 역사적 이야기로 남아 있다.

카를로타는 1840년 6월 7일 벨기에 브뤼셀 인근 라켄 궁전(Palace of Laeken, Brussels)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본명은 마리 샤를로트 아멜리 아우구스틴 빅투아르 클레망틴 레오폴딘(Marie Charlotte Amalie Augustine Victoire Clementine Leopoldine)으로, 벨기에 초대 국왕 레오폴드 1세의 외동딸이었다.

유럽 왕실 가운데서도 외교적 영향력이 큰 가문에서 성장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왕실 교육을 받았다.

카를로타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역사와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유럽 왕실 사회에서는 그녀를 지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평가했다.

1857년 그녀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Habsburg) 왕가의 대공 막시밀리안(Maximilian)과 결혼했다.

막시밀리안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동생으로, 자유주의적 성향과 개혁적 사고를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왕실 혼인을 넘어 당시 유럽 정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합이었다.

이 부부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유럽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시작됐다. 1860년대 초 멕시코는 개혁 전쟁 이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틈을 이용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Napoleon III)는 멕시



코에 친유럽 군주국을 세우려 했다. 멕시코 보수와 역시 공화정부에 맞서 군주제 복원을 지지했고, 결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을 멕시코 황제로 추대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여러 차례 고민 끝에 막시밀리안은 왕위를 받아들였고, 1864년 그는 아내 카를로타와 함께 멕시코로 향했다.

이들은 베라크루스(Veracruz)에 도착한 뒤 멕시코시티(Mexico City)로 이동해 차풀테펙 성(Chapultepec)을 황궁으로 삼고 제국 통치를 시작했다.



카를로타는 단순한 황제의 배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치와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막시밀리안이 지방 순방을 떠났을 때에는 제국의 섭정으로서 실제 통치를 맡았다. 이는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통치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황후 카를로타는 사회 개혁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노동 환경 개선과 체벌 금지, 공교육 확대, 고아와 빈민을 위한 복지 시설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철도와 전신망 등 근대 인프라 확충을 장려했고 문화예술 기관 설립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녀와 막시밀리안은 멕시코를 유럽식 입헌군주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이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의 현실은 그들의 이상과 달랐다. 멕시코 공화국 정부를 이끌던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arez) 대통령과 공화파 세력은 외국의 개입으로 세워진 군주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서 공화파 저항이 이어졌고 제국은 프랑스 군대의 군사 지

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1866년이었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뒤 미국 정부가 프랑스에 멕시코 철군을 강하게 요구했고, 유럽 정치 상황 역시 변하면서 나폴레옹 3세는 결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군대가 떠나자 멕시코 제국의 기반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국이 붕괴 위기에 놓이자 카를로타는 직접 유럽으로 건너가 도

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나폴레옹 3세를 설득하려 했고, 이후 로마에서는 교황 비오 9세(Pope Pius IX)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무너져가는 멕시코 제국을 지원하려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카를로타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독살 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렸고 음식과 물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에 의해 벨기에로 돌아가 사실상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사이 멕시코에서는 제국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막시밀리안 황제는 케레타로(Queretaro)에서 공화군에 포위된 끝에 체포됐고, 1867년 군사재판을 거쳐 총살형에 처해졌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처형 직전 “가엾은 카를로타(Pobre Carlota)”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남편의 죽음 이후 카를로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멕시코 제국의 황후였던 그녀는 벨기에의 부쇼 성(Château de Bouchout, Meise)에서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하며 남은 생을 보냈다.

카를로타는 1927년 1월 19일 벨기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86세였다. 멕시코 제국은 불과 3년 남짓 존재했지만 그녀의 삶은 그 이후로도 60년 가까이 이어졌다.

오늘날 멕시코 역사에서 막시밀리안(Maximilian)과 카를로타의 이야기는 외세 개입과 정치적 야망, 그리고 개인의 비극이 얽힌 사건으로 기억된다.

유럽의 공주로 태어나 멕시코의 황후가 되었고 다시 평생을 고립 속에서 살아야 했던 카를로타의 삶은, 한 시대의 격변과 함께 사라진 제국의 상징적인 역사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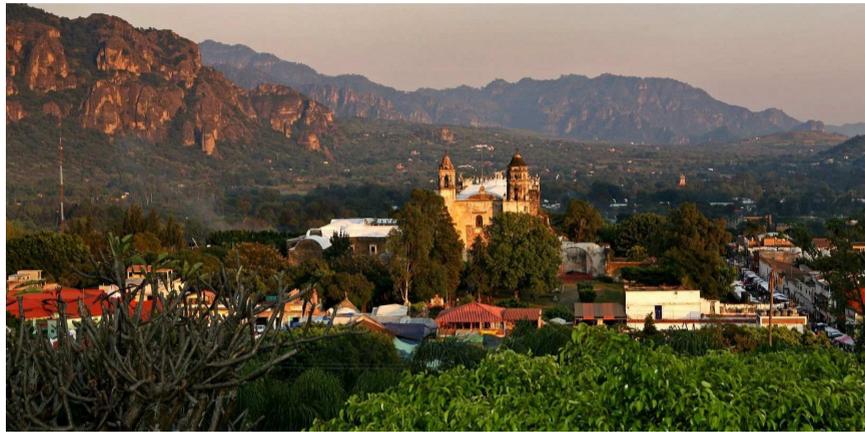
물 좋고 산 좋은.., 멕시코시티 근교 당일 여행지 2곳

테포스틀란(Tepoztlan)
신비로운 산과 아즈텍 신화의 마을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Tepoztlan은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Pueblo Mágico(마법의 마을) 가운데 하나다. 이곳은 독특한 자연경관과 고대 아즈텍 문화가 결합된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행지로 유명하다.

Tepoztlan의 가장 큰 상징은 마을 뒤편 산 정상에 있는 Pirámide del Tepozteco다. 이 피라미드는 아즈텍 시대의 신 Tepoztecatl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Tepoztecatl은 술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전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피라미드까지 올라가는 등산 코



스는 약 30~40분 정도 걸리며 정상에 도착하면 Tepoztlan 마을과 주변 산맥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안개가 산 사이로 흐르는 장관을 볼 수 있어 사진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 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유적지 때문만이 아니다. Tepoztlan은 멕시코에서 **영적 에너지(spiritual energy)**가 강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명

상, 요가, 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부 사람들은 이 지역을 “멕시코의 영적 중심지” 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을 중심 광장 주변에는 전통 시장과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특히 주말 시장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음식은 Tepozteco 스타일 아이스크림과

옥수수 요리, 그리고 멕시코 전통 간식인 quesadillas다.

또한 Tepoztlan은 멕시코 화가와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20세기 초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작업실을 만들며 예술 공동체가 형성됐다. 그래서 작은 갤러리와 예술 상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매년 9월 8일에 열리는 El Reto al Tepozteco라는 전통 축제다. 이 축제는 스페인 정복 이후 원주민과 가톨릭 문화가 결합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로,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는 것으로 유명하다.

멕시코시티에서 가까우면서도 자연과 역사, 신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Tepoztlan은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찾는 대표적인 여행지다.

바예 데 브라보 (Valle de Bravo)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휴양 도시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140km,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Valle de Bravo는 멕시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곳 역시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Pueblo Mágico이며 자연 풍경과 휴양 분위기로 유명하다.

Valle de Bravo의 중심에는 거대한 인공 호수인 Lago de Valle de Bravo가 있다. 이 호수는 멕시코시티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 시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주말이 되면 멕시코시티 주민들이 이곳으로 와서 보트, 요트, 카약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긴다. 호수 주변에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많아 풍경을 보며 식사를 즐기기도 좋다.

이 도시의 역사는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지역을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농업과 무역



중심지로 발전했다. 지금도 도시 중심에는 식민지 시대 건축 양식이 남아 있어 유럽풍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도시 중심에 있는 Parroquia de San Francisco de Asís 교회는 Valle de Bravo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흰색 벽과 붉은 지붕이 특징이며 마을 광장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Valle de Bravo가 특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 명소라는 점이다. 주변 산과 호수의 지형이 공중 스포츠에 적합해 세계 각국에서

패러글라이딩 선수들이 이곳을 찾는다. 맑은 날에는 하늘을 나는 패러글라이더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도시 근처에는 Reserva de la Biosfera Mariposa Monarca가 있다. 겨울철에는 캐나다에서 이동해 온 Monarca 나비들이 이 지역 숲에 모여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나비 이동 현상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자연 현상이다. Valle de Bravo는 멕시코의 부유층이 별장을 갖고 있는 휴양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

시 곳곳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부티크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말 여행지로 꼽힌다. 멕시코시티 주변에는 역사적인 도시와 자연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많다. 특히 Tepoztlan과 Valle de Bravo는 접근성이 좋고 볼거리도 다양해 당일 여행지로 가장 추천되는 장소다.

Tepoztlan이 고대 아즈텍 신화와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Valle de Bravo는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휴양 도시다. 두 곳 모두 멕시코시티에서 1~2시간 거리라는 점에서 주말 당일 여행지로 매우 적합하다.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국민이나 여행객이라면 주말에 잠시 도시를 벗어나 이 두 지역을 방문해 보는 것도 멕시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멕시코시티 보랏빛 하카란다 만개... 도심 봄 풍경 절정

멕시코시티 도심 곳곳에서 하카란다(Jacaranda) 나무가 만개하면서 도시가 보랏빛 봄 풍경으로 물들고 있다. 매년 3월이 되면 멕시코시티 주요 거리와 공원에 심어진 하카란다 나무들이 동시에 꽃을 피우며 도시 전체가 보라색 꽃으로 뒤덮이는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레포르마 대로(Paseo de la Reforma)**와 차풀테펙 공원(Bosque de Chapultepec) 주변은 하카란다 명소로 유명하다. 이 지역에는 수백 그루의 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어 꽃이 만개한 시기에는 도심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꽃이 핀



거리를 산책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봄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하카란다 꽃은 보통 2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3월과 4월 사이에 절정을 이루며, 꽃이 떨어질 때에는

도로와 보도가 보라색 꽃잎으로 덮이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이 시기에는 멕시코시티의 대표적인 계절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도시를 찾기도 한다. 멕시코시티 시정부에 따르면

도심에는 수천 그루 이상의 하카란다 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으며 매년 봄 도시의 대표적인 자연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꽃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 역시 아름다운 봄 풍경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하카란다가 단순한 가로수를 넘어 멕시코시티를 상징하는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봄철이 되면 시민들이 거리에서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생활 속 자연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멕시코 길거리 음식 인기 계속... 타코 알 파스토르 판매 증가

멕시코시티에서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타코 알 파스토르(Tacos al Pastor)**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의 노점과 음식점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요식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외식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길거리 음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타코 알 파스토르는 얇게 썬 돼

지고기를 양념한 뒤 세로 회전식 그릴에서 구워 포르피야에 담아 먹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여기에 파인애플과 양파, 고수 등을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특한 풍미 덕분에 멕시코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멕시코시티의 주택가와 변화가 곳곳에서 타코 노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

다. 일부 유명 노점은 하루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타코를 판매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음식 배달 서비스의 영향으로 유명 타코 가게를 찾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노점은 멕시코시티 전역에서 방문객이 몰리며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길거리 음식 문화가 멕시코 도시 생활의 중요한 부

분이라고 설명한다. 타코를 비롯한 다양한 노점 음식은 멕시코 시민들의 일상 식사이자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또한 멕시코시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길거리 음식 체험은 중요한 여행 요소로 여겨진다. 많은 여행 가이드에서는 타코 알 파스토르를 멕시코를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일품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멕시코 최고의 中食堂

짜장면...\$170 군만두....\$200
잡봉.....\$200 찹쌀탕수육....\$390

할인 세트메뉴

찰쌀탕수육+짜장면2 \$480
판봉기+짜장면2 \$450

※ 월요일 정상영업 합니다

Praga 54, Col. Juárez, Cuauhtémoc, 06600, CDMX (Zona Rosa)
주문전화: 55-5511-2848 / 55-5511-3939

멕시코 유일 정통 중화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ngak RESTAURANTE COREANO



주문가능시간: 11:30 am-8:30 pm
www.harimgak.com.mx

CJNG 수장의 죽음과 장례식... 멕시코 범죄 지형에 남긴 파장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CJNG(Cartel Jalisco Nueva Generacion)의 수장 Nemesio Oseguera Cervantes, 일명 El Mencho의 사망은 멕시코 사회와 정치권, 치안 당국 모두에 큰 파장을 남겼다.

수년 동안 멕시코 정부와 미국 수사기관이 가장 집요하게 추적해 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는 CJNG의 향후 행보와 권력 구조 변화, 그리고 범죄 조직 간 세력 재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l Mencho는 멕시코 서부 Jalisco주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CJNG를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약 카르텔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조직은 마약 밀매뿐 아니라 연료 절도, 갈취, 납치,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을 통해 빠르게 세력을 확대했고 멕시코 여러 주와 미국까지 연결된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의 위치가 확인되기까지 멕시코 군과 정보기관은 오랜 기간 추적을 이어왔다. CJNG는 철저한 경호 조직과 은신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으며 El Mencho 역시 자주 이동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다. 수사 당국은 조직 내부 인물, 가족 관계, 자금 흐름,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며 그의 은신처를 좁혀 나갔다.

결정적인 단서는 그의 주변 인물에 대한 감시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보기관은 El Mencho와 가까운 인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Jalisco 산악 지역의 한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멕시코 군과 Guardia Nacional이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와 작전 준비를 시작했다.

작전은 고위험 군사 작전으로 진행됐다. CJNG는 중화기와 장갑 차량까지 보유한 강력한 무장 조



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도 군 헬기를 공격하는 등 멕시코 정부에 큰 충격을 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 군은 헬기와 장갑 차량, 특수부대를 투입해 해당 지역을 포위했다.

작전이 시작된 새벽, CJNG 경호 조직과 군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여러 명의 조직원이 사망하거나 체포됐고 El Mencho 역시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결국 숨졌다.

El Mencho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CJNG는 과거에도 지도부 체포나 사망 이후 보복 공격을 벌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Jalisco와 인근 지역에서는 도로 봉쇄와 차량 방화 사건이 발생했고 멕시코 정부는 군과 경찰 병력을 주요 도시와 도로에 배치해 치안을 강화했다.

El Mencho의 장례식은 그의 고향으로 알려진 Jalisco 주 지역에서 며칠 전 치러졌다. 장례식은 철저한 경비 속에서 진행됐으며 가족과 가까운 측근들만 참석한 비교적 제한된 형태의 장례였던 것

으로 전해진다. 멕시코 당국은 장례식이 범죄 조직의 과시 행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지역에 군과 경찰을 배치하고 상황을 면밀히 감시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Jalisco 지역의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위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직 추종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장례 절차는 비교적 조

용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식 이후에도 CJNG 조직원들의 움직임에 경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l Mencho의 사망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CJNG 내부의 후계 구도다. CJNG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여러 지역 지휘관들이 연결된 네트워크형 조직이라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조직이 곧바로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조직 내부에서 여러 인물이 권력 경쟁을 벌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CJNG에는 지역 조직을 이끄는 핵심 인물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내부 갈등이나 세력 재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El Mencho 사망 이후에도 CJNG 조직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자금 흐름과 무기 공급망, 국제 마약 유통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El Mencho의 사망이 멕시코 카르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멕시코에는 CJNG 외에도 여러 대형 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경쟁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CJNG 역시 멕시코뿐 아니라 미국과 중남미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지도자의 사망이 조직 전체 활동을 단기간에 멈추게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l Mencho의 사망은 멕시코 범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수년 동안 멕시코 정부가 가장 추적해 온 범죄 조직 수장이었고 CJNG 역시 멕시코에서 가장 폭력적인 카르텔 가운데 하나로 평가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 정부와 치안 당국은 CJNG 내부 권력 재편과 조직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El Mencho의 장례식이 치러진 이후에도 멕시코 여러 지역에서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조직 내부 변화가 멕시코 범죄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l Mencho의 삶과 죽음은 멕시코가 여전히 카르텔 문제와 싸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의 사망은 범죄 조직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멕시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더 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멕시코, 항만 연료 밀수 대대적 수사 확대

카르텔·공무원 연루 의혹... 항만·세관·해군 내부까지 조사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연료 밀수 조직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전국 주요 항만으로 확대하면서 멕시코 정치와 치안 분야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범죄 단속을 넘어 항만 세관과 해군, 공무원 조직 내부까지 포함하는 대형 부패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주요 항만은 과야마스(Guaymas), 탐피코(Tampico), 엔세나다(Ensenada) 등 멕시코 태평양과 멕시코만을 연결하는 전략적 항구들이다. 이들 항구는 석유와 연료 운송이 집중되는 곳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연료 밀수와 불법 유통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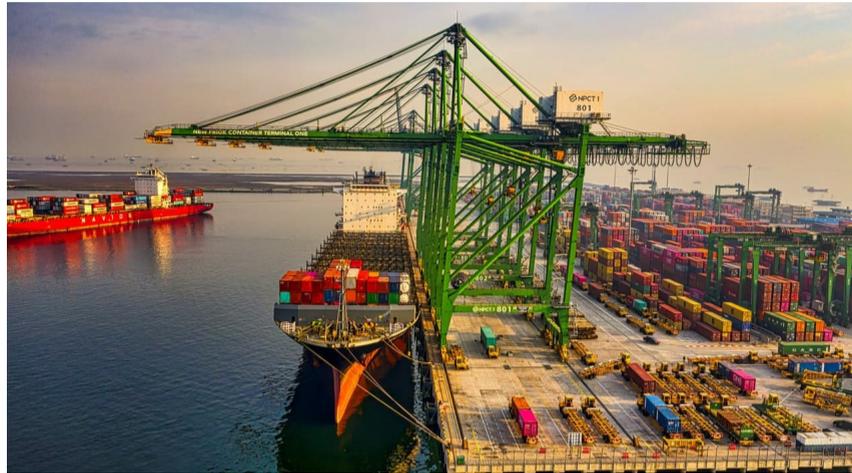
멕시코 반부패부와 해군 당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범죄 조직은 항만을 통해 석유 제품을 불법적으로 들여오거나 빼돌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료 밀수는 멕시코에서 **“huachicol fisca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범죄로, 기존의 파이프라인 연료 절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멕시코에서는 주로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Petroleos Mexicanos, Pemex)**의 파이프라인에서 연료를 빼돌리는 범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만을 통한 국제 연료 거래를 이용한 밀수가 급증하면서 범죄 구조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일부 선박이 정상적인 석유 제품 거래로 위장해 연료를 들여오거나 다른 화학제품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연료를 운송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세관 검사와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항만 세관



직원과 해군 관계자,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미 일부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과 공무원 등 14명을 체포한 사례가 있으며, 수사는 현재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연료 밀수가 멕시코 범죄 조직의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는 연료 가격 차이와 세금 구조 때문에 불법 연료 거래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부 카르텔 조직은 이러한 연료 밀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연료 공급망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이를 장악할 경우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항만 운영 시스템과 세관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일부 항만에서는 이미 세관 직원 교체와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최근 몇 년 동안 마약 밀매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 범죄와 싸우고 있다



무기 구매나 마약 밀매 조직 운영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연료 밀수 시장 규모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사는 멕시코 정부의 조직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정부는 항만과 세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연료 밀수는 단순한 경

고 설명한다. 카르텔 조직들은 기존의 마약 거래 외에도 연료 절도, 갈취, 불법 광산 개발,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 활동으로 수익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Cartel Jalisco Nueva Generacion(CJNG)**과 같은 대형 범죄 조직은 이러한 경제 범죄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 정부는 조직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치안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멕시코 항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멕시코는 세계 주요 해상 교역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연간 수천만 톤의 화물이 항만을 통해 이동한다. 그러나 일부 항만에서는 보안과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앞으로 항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관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불법 연료 거래와 관련된 금융 흐름도 추적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멕시코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항만과 세관 부패 문제가 조직 범죄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료 밀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멕시코 에너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법 연료 거래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세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항만 부패와 조직 범죄 구조를 동시에 해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멕시코 당국은 앞으로 추가 체포와 새로운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가 직면한 조직 범죄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마약 밀매뿐 아니라 연료 밀수와 같은 새로운 범죄 형태가 등장하면서 멕시코 정부의 대응 역시 더욱 복잡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이러한 범죄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뿐 아니라 항만 관리 시스템과 공공기관의 부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